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의 생각, 말, 행위, 성질, 산스카르가

아버지의 생각, 말, 행위, 성질, 산스카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제까지 마음의 위로자에게 보내온 마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물어보려고 왔다. 너희들 모두 마음의 위로자에게 진정한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 마음의 위로자 한 분에게 너희가 진정한 마음을 이미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의 진심을 줄 수 없다. 마음의 위로자에게 진심을 준다는 것은 그를 너희 가슴속에 모셔놓는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쉬운 요가라 한다. 머리는 가슴을 따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위로자를 너희 가슴과 또 머리 속에서, 즉 의식 속에도 역시 그를 모시고 있다. 마음의 위로자와 너희 사이에 그 어떤 의식이나 사람도 끼여들지 않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느냐? 너희가 이미 마음과 머리를 주었으니, 즉 너희가 아버지에게 의식, 생각, 힘을 주었으니 다른 무엇이 남았느냐? 이제 너희는 생각, 말, 행위로 아버지에게 속한다. 너희는 아버지에게 속한다고 여기면서 심지어, “나는 바바의 것, 바바는 나의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봉사이니 그것은 또 너희들을 위한 봉사다. 이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 말, 행위에서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들어올 틈이 있겠느냐? 어떤 생각이나 이끌림이 들어올 수 있게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이 있느냐? 누군가 사람이 들어오는 길은 너희의 마음, 지각, 행위를 통해서다. 네 가지를 모두 체크해서 그들 중 누구도 들어올 틈을 남겨두지나 않았는지 보라. 틈이 있느냐? 꿈도 역시 이것에 기반을 둔다. 너희가 일단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나면 뭐가 더 남느냐? 이를 두고 한결같이 끊이지 않는 기억이라 한다. 그것에 대해 너희의 말과 행동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을 테지? 너희는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을 뒤섞지 않겠지? “태양왕조”란 황금시대라는 뜻이다. 그것에는 다른 무엇도 섞이지 않을 것이다. 다이아몬드에는 흠집이 없다. 아무런 결함도 남아있지 않을 테지?

생각, 말, 성질, 산스카르에서 나약함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너희는 뭐라 하느냐? “이것이 내 생각이야, 또는 그제저의 산스카르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산스카르와 생각이 어떠하든 너희들의 산스카르와 생각도 같게 해라. 너희의 생각과 산스카르가 아버지의 생각과 산스카르와 같아지면 그때는 너희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성질과 산스카르가 그런 걸요!”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라는 말은 나약함의 말이다.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가 생각, 말, 성질, 산스카르에서 아버지와 한결같이 대등하다는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버지의 것과 다를 수가 없다. 그런 영혼의 모든 생각, 말, 활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바바, 바바”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행위를 행하는 동안 너희는 카란하르 (남들을 통해서 행하는 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매사에 바바가 임하고 있으니 마야는 올 수 없다. 아버지는 마야든, 둘 중 하나다. 런던의 거주자인 너희들은 항상 “바바, 바바” 하며 의식 속에서 바바와 늘 함께 함으로써 마야의 정복자가 되었다. 너희가 항시 유산을 차지하고 있으니 기억도 역시 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또 언제나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런던은 봉사의 토대인 곳이다. 그러므로 토대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도 기반처럼 강하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같은 불평은 없을 테지? 일반적으로 너희는 마야에 대한 연극을 공연한다. 마야는 올 생각이 없었지만, 온다. 너희들은 어쩌면 마야 없는 연극은 만들 수가 없는 듯하다. 너희들은 마야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자, 이제는 모든 것의 변한 모습에 대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라. 마야의 주된 모습이 뭔지 너희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다. 이제는 마야의 정복자가 되었으니 마야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극을 공연해라. 정욕이 담겼던 육체의식의 시선이 영적인 사랑의 형태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악덕들은 전부 다 변했다. 그러니 변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연극으로) 보여줘라. 런던의 거주자인 너희들은 자아발전과 세계 유익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특히 너희가 천사라는 것과 또한 천사의 모습, 말,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너희 모두 가져라. 그러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천사로서 계속 행할 것이다. “나는 천사다! 나는 천사야!”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유지해라.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에게 속하고 또 너희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무엇이 되었느냐? 너희는 가벼운 천사가 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 속하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네!”라는 표현 하나만 기억해라.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이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 너희가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해마다 전진하고 변함없이 계속 전진할 것이다. 너희들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들어갈 천사라는 것이 아주 확고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들은 아니겠지? 맞아.

런던 주민들에 대한 칭송은 모든 이가 다 안다. 모든 이가 너희 모두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마야에 대한 한결같은 정복자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2중으로 강력한 부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밥다다에게서 끊임없이 부양 받고 있고, 아버지가 도구로 만든 자들에게서도 역시 강력한 부양을 받고 있다. 너희가 무체이며 미묘하고 육신을 가진 이들을 따르면 무엇이 되겠느냐? 너희는 천사들이 되지 않겠느냐? “런던의 주민들”이란 불만이 없고 혼동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너희 모두 영적인 삶과 자아주권을 가진 왕, 왕비들이다.

너희에게는 이 도취감이 있지 않느냐?

밥다다가 쿠마리들을 만나심.

쿠마리들은 자기들의 행운을 보며 항상 명랑하다. 쿠마리들은 세속의 삶에서도 고결하다고 간주된다. 지식의 길에서도 역시 너희들은 위대하다. 너희는 세속의 삶에서도 고귀한 영혼이고 이 영적인 삶에서도 역시 고결하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느냐? 최소한 세상이 들을 수 있을 방식으로 “네”라고 해라. 밥다다는 아무도 너희에게 눈길을 던질 수 없도록 너희 쿠마리들을 그의 마음의 보물창고에 간직해둔다. 너희들은 참으로 더 없이 귀중한 보석들이다! 쿠마리들은 언제나 공부하고 봉사하느라 바쁘게 지낸다. 너희들은 쿠마리의 삶에서 아버지를 찾았으니 그 이상 뭘 더 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여러 관계 속에 배회할 필요가 없었으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제 받았다. 너희는 그 한 분에게서 모든 관계를 다 찾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가 낭비적인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졌을지 아느냐? 시어머니, 시누이 등등의 관계를 말이다. 너희는 그 모든 것에서 구제되었다. 너희는 덧에 걸리지도 않았고 걸려든 뒤에 거기서 빠져나오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쿠마리들은 더블 라이트하다. 쿠마리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와 같은 봉사자들이고 또 아버지처럼 모든 다르나의 화신이기도 하다. “쿠마리의 삶”은 순수한 생이라는 뜻이다. 순수한 영혼은 고귀한 영혼들 아니냐? 그래서 밥다다는 쿠마리들을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의 형태로 본다. 순수한 영혼은 아버지와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다.

너희의 행운을 변함없이 너희 앞에 두고 강력한 영혼이 되어 계속 봉사에 힘을 부어넣어라. 이것은 엄청난 자선이다. 너희가 달성한 성취를 남들에게 나눠줘라. 너희의 보물들을 나눠주면 그것들은 도리어 더 늘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순수한 생각들을 가진 쿠마리들이 아니냐? 맞아.

밥다다가 선생들을 만나심.

너희는 세상이라는 진열장 속의 특별한 진열품들이다. 모든 이의 시선이 도구인 봉사자들과 선생들에게 쏠려있다. 너희는 끊임없이 무대 위에 올라 있다. 무대는 참으로 크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많다. 모든 이가 도구 영혼인 너희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기대한다. 너희는 끊임없이 이를 의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센터에서 사느냐, 무대 위에서 사느냐? 너희는 무수한 영혼들 가운데서 최고로 큰 무대에 끊임없이 등장해 있다. 그러니 공여자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주면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줘라. 대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의식을 지닌 채 너희가 행하는 모든 생각, 말, 행위가 주인공의 생각, 말, 행위가 되게 해라, 왜냐하면 세상의 영혼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무대 위에 머물러있어라! 내려오지 마라! 밥다다는 도구인 봉사자들을 그의 친구라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도 역시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처럼 도구인 자들은 그의 친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참으로 가까운 영혼들이다. 너희는 변함없이 아버지와 함께 하며 그와 가까이 있는 경험을 하느냐? 너희가 “바바”라 할 때마다 그는 천 개의 팔과 더불어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밥다다는 도구가 된 자들에게 가외로 협조해준다. 그러므로 “바바”라 하며 넘치는 도취감을 가지고 그를 불러라, 그러면 그가 임할 것이다. 밥다다는 순종적이 아니냐? 맞아.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만이 지구 전체 왕국의 행운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너희들 모두 제 스스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이라 여기느냐? 오직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만이 지구의 통치자가 될 권리를 차지하고 미래에 왕국의 행운을 받는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이클 전체를 거치는 동안 너희가 연기하는 갖가지 다양한 배역들을 안다는 뜻이다. 너희 모두 이 특별한 측면을 아느냐? 너희가 전체 사이클 내내 주인공 배역을 연기하는 특별한 영혼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생에 너희의 삶을 다이아몬드처럼 값어치있게 만듦으로써 너희는 전체 사이클 내내 주인공 배역을 연기하는 자들이 된다.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에서 너희가 취해온 생들을 모두 다 아느냐? 너희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지금 이때다. 너희가 본인의 모든 생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때뿐이고 따라서 이제 너희는 5천년 동안의 본인의 별자리 운세를 알 수 있다. 다른 누가 너희의 별자리 운세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겨우 두세 달, 많아야 여섯 달 동안에 관해서 뿐일 것이다. 하지만 밥다다는 너희들의 모든 생 전체에 대한 별자리 운세를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너희 모두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 계산내역 전체를 그림으로도 역시 보여줘 왔다. 너희가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 왔다는 것은 분명히 너희가 이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별자리 운세를 그림으로 본 적이 있느냐? 그 그림을 볼 때 너희는 그것이 너희들의 별자리 운세의 그림임을 느끼느냐? 아니면 그것이 단지 지식을 설명하는 그림일 뿐이라고 느끼느냐? 너희에게는 사이클 전체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배역을 연기하는 특별한 영혼이라는 도취감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첫 번째 아버지이며 세계의 첫 번째 어머니인 아버지 브라마와 함께 전체 사이클 내내 다양한 배역들을 연기해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사이클 전체에 걸쳐 아버지 브라마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완수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니르바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초창기를 못 보았던 자들은 뭘 봤느냐? 너희들 모두 세계 초기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참으로 여러 번 보았다!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던 그때, 그 왕국,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의 삶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너희는 초창기 너희들의 생의, 즉 너희의 첫 번째 생과 현재 너희의 마지막 생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느냐? 양쪽 모두에 대한 칭송은 끝이

없다.

첫 번째 신인, 아디 데브, 브라마, 그리고 첫 번째 영혼인 슈리 크리슈나의 차이가 보이 듯이 너희는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함께 보이기도 해야 하며, 각자 너희의 브라민 모습과 신인 모습을 계속 앞에 놓아두고 너희 영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고귀한 상태에 머물렀는지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엄청난 도취감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너희를 창조하고 있는 한 분과 되고 있는 자 (너희)의 특별함이 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두 가지 형태를 다 보는 것이 기쁘다. 비록 너희는 등수대로이지만 영혼인 너희들은 각자 신인 영혼이 될 것이다. 신인들이 숭배받을 가치 있고 고귀하며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은 모든 이가 다 믿는다. 설혹 신인 영혼인 너희들 중 하나가 꿀찌 영혼이라 해도 그래도 그는 여전히 숭배받을 가치 있는 자들의 명단에 들어 있다.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왕국의 행운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반 사이클 동안 숭배되는, 존경받을 가치 있는 고귀한 영혼이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너희의 살아있는 브라민 형태와 신인 형태의 형상들을 어떻게 숭배하고 믿는지 너희는 볼 수 있다. 누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느냐? 이 인식의 형태에 한결같이 안정해서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저 아래 바닥에서부터 무대로 올라가려고 되풀이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어디서 왔든, 지금 이때에는 너희들 모두 마두반의 주민들이다. 그러므로 마두반의 주민인 너희들 모두 쉽게 기억의 화신이 되지 않았느냐? 마두반의 주민이 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마두반이라는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영원히 축복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장소에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너희들 모두 온갖 축복을 다 받은 마두반의 주민이 되는 형태에 안정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완전해지는 단계를 경험하지 않느냐? 완전한 모습의 화신인 이는 끊임없이 행복해하며 춤추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노래 부를 것이다. 남들이 몸으로 춤추는 것을 지켜보는 관중들까지 자기들 스스로 춤추고 있는 양 느끼기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는 자들도 역시 마음으로 행복해하며 춤추기 시작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행복하게 춤춰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춤추고 노래 불러라. 앗차.

2중의 외국인 자녀인 너희들은 이 특별한 기회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의 수가 늘면 그때 너희는 뭘 하려느냐? 바라트의 주민인 자녀들이 2중의 외국인 자녀인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너희들도 역시 남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남들의 행복에서 너희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위대한 대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Blessing: 낙담하는 것과 교만한 데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서 겸손하게 갱신의 과업을 수행해라. 노력에서 낙담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해라. “난 이 일을 해야 해. 이 일은 이뤄야 돼. 승리의 염주는 내 기념물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승리해라. 단 1초 또는 1분도 낙담의 감정이 너희 마음에 들어갈 여유 공간을 허용하지 마라. 교만과 낙담은 너희가 아주 강해지게 놔두지 않는다. 에고를 가진 자들은 종종 모욕 받았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 두 가지에서 모두 해방되어 겸손해져라, 오직 그제야 너희가 갱신의 과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logan: 세계 봉사의 옥좌에 앉아라, 그러면 너희가 왕국의 옥좌에 등극할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